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14	03. 21	03. 28
대 표 기 도	유미영 집사	김남희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유미영 집사	김남희 집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신약통독-1월 24일~4월 3일(70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마치게 됩니다. 신약을 완독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시오.
2. 사순절(2월17~4월3일) 기간 동안 경건과 신앙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 정기 제직회-14일(주일) 오후 5시, Zoom으로 모이겠습니다.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박혜리 자매(7일) Florian Flömer(13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3. Fastenzei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269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롬 13 : 11 - 14 (신p258) ... 정용현 안수집사
(Römer 13:11~14)
- 설 교 Predigt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272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온라인 헌금은 정용현 회계 집사님께 문의해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유미영 집사

힘을 빼야 할 때

예전에 양로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를 침대에 옮기려 했었습니다. 나는 마른 편이었지만 휠체어 앞에서 양다리를 상대의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환자의 겨드랑이 밑을 잡고 들어 올려서 침대 위에 확 돌려 앉히기만 하면 되는 요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자는 여의치가 많았습니다. 그를 들어 올려 의자와 침대 중간쯤 옮겼을 때 그가 나를 '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나를 돕겠다고 스스로 일어서 보려고 했던 것인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온 몸이 나무 판자처럼 뻣뻣해져서는 두 팔이 양 옆으로 미끄러지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힘 빼세요, 제가 안아 옮길 테니까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내가 고함을 질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버둥거린 결과 나는 그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달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나를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나를 도와주려고 스스로 움직이지만 않았던들 문제 될 것은 조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참 평화를 누리려면 스스로 자족적 방책이나 생활방식에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태껏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포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경의 무게를 더하셔서 우리가 육의 힘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 Steve McVey 목사
(Grace Walk Ministries 대표)

* 영원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현재다. - C. S. Lewis(1898~1963년) -